

“우린 수어로 얘기해요”

무주군, 청각장애인 이해 넓히기 위해 공무원 교육

무주군은 청각·언어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이들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기 위한 공무원 수어교육을 실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상은 군청 사회복지과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중심으로 읍·면 주민자치센터까지 희망자를 받아 2개월 과정으로 매주 금요일 오후 5시에서 6시까지 진행된다. 무주군 공무원 수어 교육은 (사)한국농어인협회 무주군지회 전문 수어 통역사로부터 시간표현과 약속잡기, 지화, 지숫자, 수어에 관한 Q&A 등 기초수어와 관공서에서 활용할 수 있는 회화 등을 배우는 것으로 진행된다. 교육 참가 공무원들은 “우리 군의 청각·언어장애인 수가 380여명 정도 되는데 배워 두면 언젠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으리란 생각에 시작

을 했다”라며 “장애인이거나 비장애인이 모두가 불편함 없이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배울 것”이라고 말했다. 무주군청 사회복지과 최애경 장애인 복지 담당은 “수어교육은 함께 하는 주민복지 실현을 위한 특수시책으로 추진 중”이라며 “군민들에게 한 발 더 다가서는 복지, 군민들이 실감하는 복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진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추석, 아프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장수보건의료원, 추석 의료 불편 최소화

장수군 보건의료원은 19일 추석 연휴기간(22~26일)동안 군민들의 의료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수군 의사·약사와 응급진료기관 및 휴일지킴이 약국을 지정·운영한다고 밝혔다. 장수군보건의료원은 추석 연휴기간 응급진료 상황실을 24시간 설치운영하며 진료대기와 응급처치, 진료상담, 병의원 및 약국 안내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공공보건의료기관 10개소와 민간의료기관 9개소, 약국 10개소 등은 당번 근무일정을 지정 운영한다. 또 대량 환자 발생에 대비해 관내 의료기관과 소방서, 경찰서 등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추석 연휴기간 운영하는 병 의원과 약국은 전화(국번없이129, 119)와 응급의료 포털 홈페이지(www.e-gen.or.kr), 보건복지부

(www.mohw.go.kr) 홈페이지 등에서 21일 오후 6시부터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응급의료정보제공’ 앱(APP)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면 더 편리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앱은 사용자 위치를 기반으로 주변에 문을 연 병원과 약국을 지도로 보여주고 진료시간 조회 서비스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보건의료원(063-350-3115, 3119)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수=고관호 기자

장수군의회 추석맞이 사회복지시설 방문

장수군의회(의장 김중문)는 추석명절을 맞아 지난 18일 장수보건복지

센터와 훈훈한 재가노인요양센터, 더사모복지센터 등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온정을 나눴다고 19일 밝혔다.

김중문 의장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말처럼 어려운 때일수록 소외된 이웃과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누는 훈훈한 지역사회가 되길 바란다”며 “작은 정성이나 마 어려운 이웃이 훈훈하고 넉넉한 명절을 보내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장수군의회는 추석명절을 맞아 지난 18일 장수보건복지센터와, 더사모복지센터 등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온정을 나눴다.

농기계임대사업 ‘우수’ 선정

장수군농기계임대사업소가 농식품부 주관 전국 지자체 농기계임대사업소 평가에서 우수 임대사업소로 선정됐다.

19일 장수군에 따르면 농식품부 전국 농기계 임대사업소 평가에서 전국 141개 시·군 443개 농기계임대사업소 가운데 10개소를 선정하는 A등급 우수 임대사업소에 장수군이 뽑혔다. 장수군은 ‘주산지 일관 기계화 사업’ 수행과 여성 농업인력 창출과 지원을 위한 ‘여성친화형 농기계사업’ 등을 통해 연간 1만여 건에 이르는 높은 임대실적, 농작업대행 운영 등에서 탁월한 점이 인정됐다. /장수=고관호 기자



장수군에 중국 산서성 4개 대학 교수 12명 초청 교류협력 의사를 밝혔다.

중국교수들 ‘장수’에 빠지다

중국 산서성 운성대 4개 대학 교수 12명 장수에 매료 교류 협력

운성대 요사순(廖四順) 교수는 “Red Color를 주제로 한 한우랑 사과랑 축제의 독창성과 다양성에 큰 감명을 받았다”며 “주민과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향토음식점과 구름처럼 관광객이 몰려드는 한우마당을 보고 탄성이 저절로 나왔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19일 장수군의 민간단체로 지역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장수사랑(대표 서병선)에 따르면 지난 14~16일 열린 ‘제12회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에 중국 산서성 4개 대학 교수 12명을 초청해 축제 전반에 대해 호평을 아끼지 않으며 교류협력 의사를 밝혔다.

산서성 대학교수 일행은 축제장에서 진행된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 체험행사장 등을 둘러보고 탄성을 자아냈다.

특히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품을 중간 유통과정 없이 생산자가 직접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직거래 장터에 깊은 관심을 표명했으며 장수의 아름다운 경관과 맑은 공기에도 호감을 표시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장수시대 회원들과 운성대 교수 일행은 이번 장수 방문을 계기로 양국의 지역 간 교류 협력증진 방안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으며 정례적인 인적교류와 장수에서 생산되는 질 좋은 특산물의 수출 시장개척에도 뜻을 같이하기로 했다.

장수시대는 지역발전에 대한 관심을 가진 지역주민들과 외부 각 계각층의 전문가로 구성된 순수 민간조직으로 장수지역발전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공유하고 회원 모두가 끊임없이 고민하고 공부하며 비전을 제시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추석, 반딧불 농 특산물로 준비하세요

무주군청서 직거래장터 열려

무주군이 20일과 21일 군청 후정에서 추석맞이 직거래장터를 연다.

선물과 제수용 반딧불 농·특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로 무주군은 사과와 포도 복숭아 등 과일을 비롯해 인삼, 더덕, 도라지 등의 약초류, 친환경 쌀과 잡곡 등의 곡류, 천마와 홍삼 등의 가공품 그리고 머무와인과 꿀감, 유과 등을 판매한다.

무주군청 농업소득과 김영중 농업마케팅 담당은 “무주군민들을 위한 최상의 상품들을 준비했다”라며 “오서

서 맛도 보시고 많이들 사가서 농가도 살리고 추석명절도 풍요롭게 보내 보시라”고 전했다.

지난 12일부터 대전과 서울, 부산, 세종, 안산, 부천 등지에서 진행 중인 대도시 직거래장터도 성업 중으로 20일까지는 군포시 한성목화아파트와 울곡아파트에서 진행된다.

도시민들은 “반딧불 직거래장터 팬”이라며 “해마다 명절이면 무주 농·특산물로 차례도 지내고 지인들에게 부담없이 선물을 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 매아리

중국 원년성 농업관계자 진안 방문

전북 우호도시인 중국 윈난 성의 농업 관계자들이 인삼 약초산업 벤치마킹을 위해 19일 대한민국 홍삼한방특구 진안군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윈난성 인민대회 우호협회에서 주관하는 농업교류행사를 전라북도에서 진행함에 따라 전라북도의 농업현황을 살피고 교류강화를 위해 방문하게 됐다.

이날 윈난성 진핑현 천리 부당서기를 비롯한 농업관계자 6명은 진안홍삼연구소와 인삼농업 GMP공장, 인삼재배단지, 홍삼판매시설 등을 견학했다.

이들은 인삼의 재배부터 연구, 유통, 판매 일련의 과정들을 설명 듣고 재배현장을 방문 하는 등 인삼산업 기술에 대한 강한 열정을 내비쳤다.

천리 부당서기는 “전라북도 방문 일정 중 홍삼특구가 있다고 하여 진안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인삼과 약초의 재배기술과 홍삼제품에 대한 군수품질인증제를 비롯해 적극적인 연구에 대한 투자, 그리고 홍삼을 주제로 한 축제까지 다방면으로 배울 점이 많아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의회 유승열 의장 행복나눔푸드마켓 물품 기부

무주군의회 유승열 의장이 최근 무주 행복나눔푸드마켓에 햄, 소면 등을 기부하며 어려운 이웃들과 행복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유승열 의장은 “민중 대명절을 앞두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약소한 것이지만 사랑을 전하고 싶었다”며 “모두가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기부 문화가 더 활성화 되었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한편, 행복나눔푸드마켓은 기부식품 이용자의 식품선택권과 자존감을 보장하고 질 좋은 식품을 지원하여 형편이 어려운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을 운영 중에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